

현대정유, 무서운 「아이」 변신

96년상반기 점유율 10.8% 2배 성장 ... 5대사 생산은 5.8% 증가

현대정유가 96년 상반기 25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정유제품 생산 및 내수판매에서 현저한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반면, 침예한 주유소쟁탈전의 본보기였던 미륵상사건을 해결한 유공을 비롯 LG칼텍스정유 등 선발정유사들의 부진은 96년 상반기에도 계속된 것으로 집계됐다.

정유5사의 생산·판매실적(1996.1~5)

(단위 : 1000Bbl, %)

구 분	합 계		현대정유		유 공		LG칼텍스정유		한화에너지		쌍용정유	
	수	량	점유율	수	량	점유율	수	량	점유율	수	량	점유율
생 산	274,308	100.0	29,562	10.8	82,410	30.0	55,959	20.4	34,199	12.5	72,207	26.3
증가율	5.8	-	110.6	5.4	(6.4)	(3.9)	3.6	(0.4)	(8.7)	(2.0)	9.9	1.0
판 매	274,029	100.0	25,137	9.2	101,861	37.2	80,640	29.4	28,823	10.5	37,568	13.7
증가율	8.6	-	30.9	1.6	6.6	(0.7)	9.1	0.1	(0.3)	(0.9)	8.5	(0.0)
수 출	72,143	100.0	10,757	14.91	11,406	15.81	5,218	7.23	11,353	15.74	33,409	46.31
증가율	20.7	-	474.6	11.8	(9.3)	(5.2)	40.0	1.0	4.5	(2.4)	8.8	(5.1)
수 입	60,076	100.0	6,228	10.4	23,607	39.3	23,918	39.8	6,290	10.5	33	0.1
증가율	32.3	-	3.0	(3.0)	71.0	8.9	44.2	3.3	(18.2)	(6.5)	(97.4)	(2.7)

* () 는 감소

관련업계에 따르면, 96년 상반기(1~5월)정유제품 생산실적은 2억7430만Bbl로 전년동기 2억5925만 Bbl에 비해 5.8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현대정유는 2956만2000Bbl로 전년동기 1403만8000Bbl 대비 110.6% 급신장, 5대정유사 중 최고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95년 상반기 5.4%에 그쳤던 점유율도 2배 늘어난 10.8%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.

LG칼텍스정유는 96년 상반기에 5592만9000Bbl을 생산해 95년동기 5400만3000Bbl에 비해 3.6% 증가했으나 점유율은 20.4%로 전년동기 보다 0.4% 감소, 후발정유사들의 기세에 뒤처리를 맞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

쌍용정유도 7220만7000Bbl 생산으로 95년동기 6567만3000Bbl에 비해 9.9% 성장한 가운데 점유율도 25.3%에서 26.3%로 1.0%P 상승했다.

이에 반해 유공은 8241만Bbl 생산으로 전년동기 8806만4000Bbl보다 6.4% 감소한 가운데 점유율도 34.0%에서 30.0%로 4.0%P 하락했다.

한화에너지도 3419만9000Bbl 생산에 그쳐 전년동기(3746만9000Bbl) 대비 8.7% 하락, 14.5%이던 점유율이 12.5%로 2.0%P 감소했다.

내수판매 현황을 보면, 유공은 1억186만 Bbl을 내수판매, 95년동기 9559만8000Bbl에 비해 6.6% 증가했으나 시장점유율은 37.9%에서 37.2%로 0.7%P 하락했다.

LG칼텍스정유는 95년 상반기 7390만4000Bbl 대비 9.1% 증가한 8064만Bbl을 기록한 가운데 시장점유율은 29.3%에서 29.4%로 0.1%P 뛰었다.

또 현대정유는 2513만7000Bbl을 판매, 시장점유율 9.2%로 전년대비 1.6%P 높였고, 쌍용정유는 13.7% 점유율을 그대로 유지했다. 반면 한화에너지는 11.5%에서 10.5%로 1.0%P 하락했다.

수출은 쌍용정유가 선두를 유지한 가운데 현대정유, LG칼텍스정유, 한화에너지 등이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유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화학저널 1996/9/23.30>